

SIM card (subscriber identity module card)

가입자 식별 모듈카드

전화기에 꽂아서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집적 회로(IC) 칩을 내장한 카드. 휴대 전화기나 기타 휴대 단말기의 전화번호, 이용자 ID는 내장된 메모리에 들어 있으며, 어떤 전화기에서도 이용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빌릴 수도 있다. 또 전화기를 분실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도 교체 전화기를 동일 번호로 사용한다. 유럽의 디지털 셀룰러 이동 통신 시스템의 표준 규격인 전 지구적 이동 통신 시스템(GSM)도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일종의 수면장애인 '하지불안증후군' (Restless Legs Syndrome)은 인구의 10~15%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도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통, 우울증, 고혈압, 불면증, 불안장애, 관절염 등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근질근질한 느낌'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 '저림' '옥짐'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 '쿵쿵 쑤심' '가려움' '타는 듯한 느낌' '그슬리는 느낌' '잡아 끄는 느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고통스러움' ...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은 이처럼 다양하게 자신의 증상을 표현한다. 이런 증상은 주로 다리에 나타나나 발과 허벅지, 몸통, 팔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잠 잘 때 혹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등 주로 휴식 중에 나타나며 저녁이나 밤시간에 더욱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다리를 움직여주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일시적이며 지속적으로 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과 증권사 간에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한 용어로 내부거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만리장성이 장성 이북의 유목과 이남의 농경을 가르듯 철저히 구획을 가르는 견고한 벽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기업 각 부문간에서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체제, 정보 방화벽이라는 의미로 확장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까지 다루는 로펌, 컨설팅사 및 회계법인 등에서 차이니즈 월이 강조된다.

한 로펌이 각각 이해가 맞서는 의뢰인의 변호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로펌에서 각각을 대리하는 데 대한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다며 신뢰성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내부의 차이니즈 월이 된다.

최근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M&A시장에서도 컨설팅사나 회계법인 등이 매각 측과 매각 대상 측, 또는 인수 측의 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차이니즈 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정보 유통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적 제도 및 내부 장치가 부실해 정보 불균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